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9월 16일(금)

...(음력 8월 21일)...

Пятница

16 сентября 2022г.

№ 36 (1200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오는 1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돔 토르고블리 쇼핑센터 옆 행사장에서 연례 '물고기 섬' 축제가 열린다.

(이예식 기자의 사진첩에서)

제8대 사할린 주두마의원 선거 결과 발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사할린주에서 제8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전체 유권자 중 29,73%(11만1161명)가 투표했고 사전투표에 3,002명이 참여했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심각한 위반사례 없이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빅토리아 체르카소와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합력하여 원만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목) 있는 선거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자가 발표되었다.

제1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 전체 투표율 22,69%, 총투표자 4491명)에서는 통합러시아당 대표로서 알렉산드르 그린베르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 부시장이 다른 후보들보다 큰 표차로 앞서면서 당선.

제2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 투표율 20,04%, 4081명)에서는 제7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인 세르게이 본다레브가 당선.

제3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 21,40%, 4604명)에서는 치열한 득표 싸움이 있었는데, 비영리 자치단체 '개와 고양이 동물보호소' 회장 이리나 사위츠카야가 당선.

제4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 투표율 24,75%, 5017명)에서는 알렉산드르 사리플린이 당선.

제5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 투표율 23,19%, 5189명)에서는 제7대 사할린주두마 의장 안드레이 카포츠킨이 당선.

제6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 투표율 24,00%, 5078)에서 개인 사업가 로만 웨제네예브(유즈사할린스크시 두마의원, <노비에 류

지(새로운 사람들)>정당)는 다른 후보와 큰 표차를 내며 당선.

제7대 사할린주두마 의원인 최 유리는 제7선거구(유즈노사할린스크, 투표율 17,95%, 3790명)에서 당선.

제8선거구(홋스크, 투표율 28,82%, 6381명)에서는 제7대 주두마 의원 아르쎘 크루그리크가 당선..

제9선거구(홋스크, 네웰스크, 투표율 33,36%, 7810명)에서는 ' '위스호드-93' 특성과 건축'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임 유리가 많은 표차로 당선..

제10선거구(유즈노쿠릴스크, 아니와 지역, 투표율 47,90%, 9724명)에서는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제7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 예브게니 로틴이 당선.

제11선거구(코르사코브 지역, 투표율 31,92%, 5985명)에서는 '고로드키'유한책임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도로셴코가 당선.

제12선거구(코르사코브,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지역, 투표율 35,34%, 6688명)에서는 사할린주 수산업 연합회 회장이자 제7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인 막심 코즐로브가 당선.

제13선거구(돌린스크 지역 28,18%, 5486명)에서는 제7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인 나탈리아 코르슈노바가 당선.

제14선거구(마카로브, 토마리,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투표율 31,21%, 7032명)에서는 나탈리아 자하르추크가 당선.

제15선거구(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스미르니흐,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투표율 32,71%, 7621명)에서 제7대 주두마 의원인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프(통합러시아당)

가 당선.

제16선거구(포로나이스크 지역, 투표율 30,58%, 5481명)에서는 통합러시아당 알렉산드르 라돔스키 포로나이스크 시장의 고문이 당선.

제17선거구(노글리키, 티몹스크 지역, 34,71%, 6840명)에서는 '도로즈니크'회사 사장 미하일 밥추크(통합러시아당 소속)가 당선.

제18선거구(오하 지역, 투표율 24,89%, 4687명)에서는 사할린주 병원장 블라디미르 로주메이코(제7대 사할린주두마 의원)가 선두를 차지해 당선.

18개 1석의 선거구의 당선자 중 17명은 통합러시아당 소속이고 1명은 '노비에 류지'당 소속이다.

비례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러시아당이 47.2%(5만2,359표)로 1위,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 14.25%(1만5,804표)로 2위,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9.19%(1만200표)로 3위를 차지했다.

'노비에 류지 (새로운 사람들)'당은 8.89%(9,865표), '러시아 연금자'당은 6.7%(7,435표), 정의로운 러시아당이 5.14%(5,706표), 러시아 공산주의자당이 2.55%(2,827표), 러시아 자유정의당이 1.46%(162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가장 적은 득표율을 기록한 '로지나'당은 0.72%(795표)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제8대 주두마 의원으로 선출된 28명(10명은 당 소속 - 비례투표, 18명은 1석 선거구 투표)이 의원 활동을 하게 된다.

비례대표 투표로 5% 이상의 득표를 넘긴 6개 정당 (<통합 러시아> 4명, 러시아연방공산당 2명, 자유민주당 1명, '새로운 사람들'정당 1명, 러시아 연금자 당 1명, 정의로운 러시아 당 1명)의 대표들이 주두마의 의원이 된다. (명단은 아직 미정).

주두마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단신

<청년 기능인> 선수권대회에서 사할린 대표단 17개의 메달과 15개의 상패 획득

사할린 대표단이 <청년 기능인> 전국 선수권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획득해 극동 지역에서는 단연 최우수 자리를 차지하고, 러시아 전 지역 순위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학생들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란스크에서 개최된 '청년 기능인대회'의 빛나는 결과로 사할린의 대표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상패는 15개를 획득했다.

선수권 결승대회에 러시아 전역에서 약 1천여 명의 청년들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경기 직접 참가자는 310명, 원격 참가자는 720명이었다. 이 대회에 1천2백 명의 전문 심사원들이 평가했다. 사할린주를 대표하여 대회 16개 종목에서 23명의 기능인과 14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청년 기능인' 선수권대회는 '교육'국민 기획의 일환으로 매해 개최되고 있다.

사할린의 특수군사작전 참전자 수당 30만 루블리까지 증가

사할린 주정부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에서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사할린 주민에게 일시 지급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했다.

전에는 보충병으로 참전하는 병사들에게는 특수군사작전 참전으로 20만 루블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후 사할린의 정부 측은 외국인에게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 영역에서 참전 일시 지급액은 20만 루블리에서 30만 루블리로 인상됐다. 이외 변수들은 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전수당을 받으려면 2022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이상 복무를 기간으로 사할린의 군부대 지휘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후 전투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참전수당은 사할린주 사회복지부에서 자동으로 지급된다.

사할린, 도네츠크의 샤희쵸르스크 지역에 새로운 차량 전달

사할린주는 도네츠크의 샤희쵸르스크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초에 사할린주는 새로이 '카마즈' 차량을 기반으로 식수와 기타 액체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인 탱크 트럭 2대를 샤희쵸르스크로 보냈다.

이전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소방차에서부터 통학버스에 이르기까지 9대의 차량을 전달했다.

"사할린주와 샤희쵸르스크와의 협력과 상호협동을 체결한 이래 11대의 특수 차량들을 전달했다. 현재 이 차량들은 기업들에게 배당돼 의도하는 바대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 정부가 전했다.

사할린 문학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할린국립대 엘레나 이콘니코와 교수

얼마 전에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문학예술박물관에서 '문학 응접실' 기획의 일환으로 50세를 맞이한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러시아어 및 문학 교수인 엘레나 알렉산드로브나 이콘니코와 교수를 모시고 동료들과 친지,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만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그녀의 창작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자도 초대받았다. 이 만남에서 축하하는 사람 모두가 이콘니코와 교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대학 선생님이자 선배인 라리사 도로페예와는 재능 있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지만 엘레나 이콘니코와 같은 제자는 유일하다며 그가 그녀에게 거는 모든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장,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장, 러시아 작가동맹 사할린 지부장, '소웨츠키 사할린'신문사 편집장 등 모두가 이콘니코와 교수를 아주 좋은 파트너로 여기고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계획하고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성이 좋은 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이콘니코와 교수님을 안 지가 꽤 오래 되었다. 2000년대 초기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되어 차츰 여러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고, 한때 한 인문화센터에서 자주 보게 되었다. 2010년에 본사의 초대로 러시아 유명 작가 김 아나톨리가 사할린에 왔을 때 많이 가까워졌다. 함께 지방도 다니며 이콘니코와 교수는 주 도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독자들과의 만남 행사에도 참가했다. 물론 김 아나톨리 유명 작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논문 주제로 김 작가의 창작을 소재로 삼은 준박사 과정인 제자를 돕기 위해서였다. 그때 필자는 김 아나톨리 작가와 함께 이콘니코와 교수의 집으로 초대를 받고 그녀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이콘니코와 교수는 그때부터 우리 신문에 많은 기사를 투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고려신문 홍보를 많이 하고, 소개도 많이 해준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학생들에게 견학시키기도 한다. 우리 신문 애독자인 그녀는 러시아 면을 꼬박꼬박 읽고 있다. 그리고 자신만 글을 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글도 소개한다.

그리고 그녀는 통신원으로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시와 소설을 쓰기도 한다.

2009-2010년, 그리고 2011년 그녀는 사할린국립대와 홋카이도 대학교의 협약으로 두 차례 일본 홋카이도 분교,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 연구학자로 활약한 바가 있다. 파견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그때 유치원생인 딸과 함께 지내는데 딸 눈으로 일본을 보는 일기 양식으로 글을 써 두 권의 소설을 편찬했다.

그녀는 동양의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단순히 관광객으로서 나라를 살펴보기 보다는 그 나라 주민들처럼 일상을 느껴보고 싶다고 한다. 그는 일본에서 그런 체험도 했었고, 2014-2015년에는 하얼빈대학교 초빙교수로 가서 중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 이 두 나라들에 살면서 언어도 조금씩 익혔다. 언어와 문학 교육자라서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어휘들에 궁금해 했고 비유 표현에 특히 호기심도 많고, 그 나라 문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도 했다.

한국도 일본과 중국처럼 한국의 속을 들여다 보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한다. 대신 한국 여러 대학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험 이 있다. 한림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이콘니코와 교수와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때 그녀가 문헌학 박사라는 걸 몰랐다. 나중에 취재하면서 알게 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 시스템에는 준박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있는데 박사가 되려면 우선 준박사 논문 발표를 해야 한다. 사실 소련 시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는 하늘에



별 따기다. 그래서 박사라면 보통 중년이 지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콘니코와 교수는 30세가 되는 해에 박사학위를 따낸 것이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모스크바 로모노소프 국립대학교에서 마쳤다. 그만큼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확히 말하면 박사가 된 지 한 달이 지난 후 30살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그가 일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국립사범대학(현 사할린국립대)에서는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되어 지금도 전설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사 과정 당시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학 2학년 때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만 19세에 아들을 낳았다. 박사를 따낸 것,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것도 남편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가족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보살핌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한다. 가족은 거의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엘레나 이콘니코와 교수의 남편 블라디미르는 그녀와 동갑이고 사할린주에서 잘 알려진 분이다. 그분 역시 사범대 출신으로서 교육에 종사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여러 학교에서 일했으며, 중학교 교장직도 역임했고, 최근 10년 넘게 사할린농업전문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그보다 그는 이미 2차 사할린주 사회원 의장으로서 사회활동가들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콘니코와 교수나 그녀의 남편은 서로 능

동적으로 발전과 향상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아이 셋이 있는데 현재 31세의 첫 아들은 독립하여 IT전문가로 활약하고 있고, 유일한 딸인 둘째 리자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2학년생이다. 셋째 사샤는 곧 15살이 된다. 이 가족은 서로 응원하며 엄마를 많이 배려해준다고 한다. 사실 아이 셋을 두고 부부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흔치 않은 사례다.

그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 교재, 보조 교재도 쓰고, 연구서도 몇 권을 펴냈고 그외 다양한 전문 잡지와 신문에 약 150개의 전문연구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사할린국립대 교수로서 강의의 양도 많다. 때로는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강의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역 문학연구로 다른 저자들과 함께 '사할린 및 쿠릴 지역 문학 역사' 연서를 두 번 편찬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더 풍부한 책을 재발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녀는 사할린 한인 출신인 허로만 시인, 양 세르게이 작가, 김증순 시인 등에 대한 연구를 하여 발표하고 연구기사도 게재했다. 그리고 극동지역 문학에서 한국적 요소에 대한 연구발표도 자주 한다. 또한 박승의 전 사할린국립대 교수가 사할린 한인 류시욱 작가의 '산중반월기'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에도 크게 도움며 러시아어판 책 감수를 맡았다.

또한 이콘니코와 교수는 제자 알렉산드라 니코노와와 공동으로 '일본 문학에서 나타나는 사할린지역'이란 재미있는 책을 편찬한 적이 있는데 '한국 문학에서 나타나는 사할린'이란 저서도 언젠가 낼 수 있으리란 희망도 갖고 있다.

한민족에 대해 애정이 남다른 그녀는 첫 아들 빅토르를 전설 가수 최 빅토르를 생각해 이름을 주었고, 그 아들이 중학교 때 한국어도 배웠다고 하고, 딸 리자는 어렸을 때 한인문화센터 소속 주말 유아학교를 2년간 다

니며 한국 동요와 율동, 한민족 문화를 익히기도 했다. 셋째는 한국어는 배우지 않았지만 유아 때 이웃 친구가 한인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들한테 '왜 자기가 한인이 아닌가?'란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한국어에도 관심이 많다. 여러 번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과정을 시작했지만 너무 바빠서 중간에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틈이 나는 대로 자습도 하고 필자를 통해 과외 선생까지 섭외한 적도 있었다.

그는 대학에서 사할린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에게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기도 한다. 주로 이들은 동양의 학생들인데 한때 부산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다. 러시아어를 가르치면서 이때 한국말을 배울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과 친해지기도 했지만 부산 동서대의 교환학생과는 잘 통하지 않았다. 때로는 러시아인 교수를 '마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콘니코와 교수는 한 교환 학생의 부산 결혼식에 귀빈으로 초대받아 부산으로 가서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했다며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한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을 말할 수 없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것을 짙막한 스토리로 만들어 쇼설네트워크를 통해 대중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에 대한 사랑을 일부 학교 학생들에게 여러 문학 경연대회를 통해, 짧은 글짓기 체험교실을 통해 전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녀는 독서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와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이콘니코와 교수의 많은 것에 대한 호기심과 끊임없는 배움의 열망에 응원과 박수 보낸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9월 17일, <국민 연대> 육상대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사할린주는 <2022- 국민 연대> 전국 달리기의 날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를 시작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전국 달리기 행사는 9월1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 박물관 구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달리기 대회에는 연령과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경기 코스는 1km, 4km, 6km, 8km, 12km에서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6세 이상 즐길 수 있는 활동교실, 온 가족을 위한 상호작용 행사장, 페인트볼 사격장, 음악 그룹의 공연, 16세 이상을 위한 이동식 안마실과 솜사탕 기구가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행사와 달리기 출발 일정, 코스에 대한 정보는 사할린주 스포츠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크로스 나ции"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даст старт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 — 2022" (6+).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

линске 17 сент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и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Выступить можно на дистанциях 1, 4, 6, 8 и 12 км.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жда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6+),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всей семьи (6+), пейнтбольный тир (6+), мобильный массажный кабинет (16+), выступление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6+), а также аппарат с сахарной ватой.

Информацию о мероприятии, расписание стартов и маршруты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아니와 순환로> 육상대회에 200명의 선수들 참가

사할린주 선수권 챔피언십 <아니와 순환로> 도로 마라톤 대회가 사할린 지역에서 개최된 가운데 200명의 육상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경쟁했다. 경기에는 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 변경,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 하바롭스크, 연해주, 사할린주의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18세 이상의 선수들이 10km, 21.1km, 42.2km 코스에서 경기를 치렀다.

마라톤 42.2km 코스에서는 사할린의 드리트리 카르페츠가 2시간 53분24초로 가장 빨리 코스를 완주했고, 42.2km코스 각각의 연령대별에서 드미트리 카르페츠와 알렉세이 노식 선수가 선두를 차지했다.

하프마라톤(21.1km) 자신의 연령대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로는 막심 코사레브, 야코브 레마노프, 로만 샤누린, 올렉 콜모고로프, 블라디미르 스쿠드넵스키, 아나스타시야 반디세와, 크세니야 니제고로도, 올리야나 도브로볼스카야, 류드밀라 골롭쵸와가 우승을 차지했다. 10km코스에서는 유리 라군과 예카제리나 워로틀라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 человек покорили "Анивское кольцо"
Чемпионат и перве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беге по шоссе "Анивское кольцо" провел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нем поборолись за победу 200 атлетов.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любители спорта из Москвы,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и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ев, Хабаровска, Приморь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Атлеты старше 18 лет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а дистанциях 10, 21,1 и 42,2 километра.

Марафонскую дистанцию 42,2 километра быстрее всех преодолел сахалинец Дмитрий Карпец с результатом 2:53,24.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선물로 김치축제를

지난 9월 1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140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시민들의 행진, 다양한 공연과 경연대회 등 수많은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가가린 공원 서북 구역에서 김치축제가 진행되었다. 김치축제 주최자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나섰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 타악기 팀의 신나는 북 공연으로 막을 올린 행사에 수백 명의 관객들이 모였다. 김치축제의 초대장을 받은 200명이 직접 김치 만들기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몇 명 빠지는 자리에는 입구에 긴 줄을 서는 사람들이 대신 참가할 수 있었다.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오늘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14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한 오늘 한민족이 대명절로 여기는 추석입니다. 추석은 25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날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풍요로움과 가족의 행복을 빕니다. 오늘 축제는 우리 협회가 시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다들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 이웃사람과 나누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도 도시 140주년을 축하하고 추석에 김치를 해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러시아말로 기원했다.

김치 만들기 시작 전에 축제 참가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로 찰떡 치는 법을 선보였다.

우 미하일 진행자의 말에 따라 200명의 참가자들이 이미 준비한 양념에 과와 무를 썰고 마늘을 다져 놓았다. 그리고 양념을 절인 배추에 발라놓았다. 고운 붉은 빛의 색상으로 변한 배추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웠다. 대다수 참가자들이 러시아인들이었는데 해놓은 김치를 가져갈 수 있다 하니 모두 대단히 기뻐했다.

이날 밥과 김치, 떡으로 구성된 시식세트 700개가 준비되었는데 시식세트가 남김없이 모두 배포됐다.

또한 김치축제의 일환으로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과 전통놀이마당이 펼쳐졌다. 이 부분은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의 한국어교수들과 학생들이 진행을 맡았다.

김치축제 봉사자로는 사할린국립대 학생 50여 명, 사할린주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아나)와 주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의 회원 등이 나서 노고가 많았다.

물론 조직과 진행에 박순옥 회장과 주한인이산가족협회 박경준 회장이 주요 역할을 하였다.

추최 측에 따르면 이번 김치축제를 위해 배추 800킬로그램, 마늘 30킬로그램, 고추가루 16킬로그램, 무 34킬로그램, 배와 사과 5킬로그램 등을 구입했고, 그외 양념에는 절인 오징어, 멸치젓, 새우젓 등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행사장을 떠나면서 많은 참가자들이 조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또 참가하고 싶다는 표명을 하기도 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은배(銀盃)를 닦듯이 / 김수영

은배를 닦듯이 인생을 닦지 말아라
너는 무조건하고 너를 즐겨야 한다
너는 무조건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미 도달하여야 할 먼 곳까지 왔을 때
너는 실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배를 닦듯이 하늘의 주변을 닦아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힘을 다하여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숭배하여라
너도 그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실망한 시인들이여
처참한 인간들이여

"숭배해야 합니다. 버티는 삶을! 누군들 힘들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어요? 제가 체홉에 빠진 이유일 수 있겠는데요. 체홉은 그 동그란 안경테를 살짝 코앞으로 빼며, 내과의처럼 아주 냉정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1백년 뒤, 이런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되묻는 식으로 말이죠. 체홉 사후 결국 1백년이 지났건만, 우리 인류의 삶은 그리 크게 바뀌지 않은 느낌입니다. 몇몇은 거대한 감부가 되었고, 몇몇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만큼 큰 성공을 거뒀겠지만, 대부분 기상 알람을 맞추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어디론가 부리나케 건너거나 이달 신용카드 결제 값을 결제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나 현금인출기를 때려 쓰고 있을 겁니다. 늘어만 가는 건 빛이요, 한숨 뿐이라니! 경제 지표가 말해주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이미 빨간 불에 들어섰다고.

쌍트 페테르부르크(Санкт-Петербург)의 말리 극단, 거기에서도 체홉에 대한 해석이라면 정통파로 유명한 레프 도진(Лев Абрамович Додин)의 연출로 저는 '바나 삼촌과 '제자매'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운이 좋았죠. 정말 끝내줬거든요. 기대했던만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입니다. 그토록 진지하게 울가, 마샤, 이리나를 그린 무대는 처음이었거든요.

가족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 소중한 추상이자 구체이자 우주의 전부를 위해, '칼레의 시민'을 위해 우리 모두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일 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재수없음. 농담, 농담이구요. 그 분들은 정말 이번 생에 있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걸 테고.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들. 제 얘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듭 풀린 안전화에 때문은 넥타이, 뒤통이 다 닳은 구두를 신으신 분들을 숭배해야 한다, (머리를 긁적이며) 바로 요겁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건 아닐 거예요. 울 어머니 표현대로 '쌈가 빠지게 용을 쓰는 거죠, 모두. 떠올리기만 해도 감동의 눈물이 줄줄 흐를 가족이 있을 테니. 뭘들 못하시겠어요. 그러니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다들 응원하면서 우리 서로 어깨동무하고 살자고요. 잘난 체도 이번 주는 독!

추석입니다. 가족입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으셨던 분들. 주식 계좌 거의 다 녹으신 분들. 잠시라도 신발 벗으신 채, 피곤한 발걸음을 멈춰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맞으세요. 우주보다 더 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사할린주 한인협회 소식

사할린주한인협회,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사에 대표 보내기로 결정

지난 9월 12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주한인협회 산하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담당 오진하 주한인협회 고문)이 모임을 가졌다.

회의 주요 안건은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한인문제, 해결 전망' 국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발표했다. 학술회를 앞두고 9월 29일-30일에는 원탁모임이 시작되며, 이 모든 행사 주최자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가 나섰다. 박순옥 회장은 이에 대한 소식을 처음 8월에 접했고, 며칠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한인회 단체로부터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박 회장은 이미 세운 계획이 있고 너무 늦게 초대권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 어려우니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주

한인협회를 대표하여 몇 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올해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주한인협회는 많은 행사를 자체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할 행사는 재정적으로 도울 수가 없다고 박 회장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대회에 사할린동포 2세 이채인 씨를 사할린주한인협회 대표로 보내기로 했고 이에 따른 비용(숙박비, 항공권)은 실무 그룹의 임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사할린 한인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부분(부모 사망 자녀 영주귀국 불가능, 이중국적 문제 등)을 표명할 수 있고, 그리고 주한인협회에서도 사할린한인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학술회의에 대표를 보내기로 했다.

(배순신 기자)

재외동포재단,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 세미나 개최

9월 15일, 제주 ICC 한라홀

제17회 제주포럼 계기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한인이 갖는 공공외교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9월 15일(목) 오전 9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미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퍼스트레이디와 박소희 배우(재일동포 3세, '파친코' 출연)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전세계 732만 재외동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격 및 국익향상을 위한 중요한 공공외교의 역할자이며, 거주국가와 모국 간의 상생발전 뿐만 아니라 평화와

공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코리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주제와 의미에 대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7회 공존과 협력을 위한 제주포럼 계기에 열리며, 유튜브(Jeju Forum 제주포럼)를 통해서 생중계되었다.

※ 제17회 제주포럼
○ 일시 및 장소 : '22.9.14(수)~16(금), 3일간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 주관 :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제 : 갈등을 넘어 평화로-공존과 협력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Партизанске отметили Чусок



В Партизанске 10 сентября провели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Чусок. Чусок буквально означает «канун осени», Чусок — это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семьи собираются вместе,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едой и историями,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друг с другом и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едков за их благословения.



В праздник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господин Ко Мун Хи, советник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артиза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Грязнов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клуб «Ариран»,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узбеков, коллектив «Канон» городского Дворца культуры Партиза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хор «Содружество»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На вечере пели, танцевали, читали стихи на корейском, русском, узбекских языках. Было настоящее праздничное веселье.

Руководитель клуба «Ариран»
Партиза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ла ЛИ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собрал фанатов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дна из площадок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ревратилась в ресторан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сотни людей готовили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Кореи — кимчи.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юбилейного Дня города, 10 сентября.

В 2022 году фестиваль стал важным звеном, соединяющим историю, культуру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народов. Очень символичн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цы много лет живут вместе, что именно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острова отмечает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календарных праздников — Чусок, или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На фестивале кимчи собрались преданные поклонник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Больше всего его гости и участники ждали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екинской капусты в пасте янним. Но перед этим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арили всем гостям небольшой подарок — показательное приготовл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тток. В народе он имеет разные названия, среди которых: паровые хлебцы, пирожки с фасолью, рисовые лепешки. Но, как отмечают сами корейцы, тток многогранен и неповторим в разнообразии вкусов. А еще это неотъемлемый атрибут всех важных событий и этапов в жизни и главное угощение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о сцены всех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и поздравила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сана Пак.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праздник кимчи не просто так совпал с Днем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это, по ее словам, подарок для всех горожан.

«С праздником вас, дорогие горожане! Сегодн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всех корейцев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раздник — Чусок. Ему более двух с половиной тысяч лет, и так совпало, что сегодня еще и день рождения нашего любимого города.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 подарок о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сем жител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Я надеюсь, кимчи получится у вас вкусное-вкусное, потом вы будете угощать соседей, 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секретами», — обратила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Оксана Пак.

Как отметили ведущие фестивал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знает, что такое кимчи. И,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этой области, существует более ста различных рецептов данного блюда. Сегодня своим секретным способом с сахалинцами поделился Михаил У —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многих фестивалей, проводимых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Кимчи для меня — это еда с детства. Я ее очень сильно люблю, как и вся моя семья.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я делюсь одним из наших семейных рецептов», — начал мастер-класс Михаил.

На столах у участников находились заранее заготовленные пекинская капуста, перцовая паста, чеснок, зеленый лук и пакетики с фартуками и одноразовыми перчатками, а также упаковк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ложить готовую кимчи. Первым делом сахалинцы приготовили пасту янним, а затем приступили к основной части приготовления — промазыванию каждого листочка капусты заправкой. После этого готовую кимчи сложили в пакеты и в пластиковые контейнеры, после чего довольные горожане отправились угощать друз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SAKH.ONLINE
Фото: Ли Е Си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не отвечает на призыв Сеула обсудить проблему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хеньян хранит молчание по поводу предложения Сеула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13 сентября в 9 часов утра сеанс связи по межкорейской линии состоялся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и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а не последовало никаких комментариев по поводу переговоров. 8 сен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редложило Северу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гуманитарным вопросам, направив послание от имени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вон Ён Сэ на имя заместителя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Единого фронта ЦК ТПК Ли Сон Гвана.

В РК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К приехал актёр Пак Со Хи, снявшийся в сериале «Пачинко» или «Дорога в тысячу ли» в роли корейского мигранта в Япони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Мо Чжа Су. Сериал описывает историю четырёх поколений семьи корейских иммигрантов в Японии. Сам актёр является корейским иммигрантом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Он родился в Японии, но имеет только корейское имя. По его словам, родители хотели воспитать его си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гордится своим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дав ему корейское имя. Пак Со Хи отмечает, что Корея для него — как безответная любовь. Актёр говорит, что всегда считал Корею своей родиной, и хочет быть мостом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Ли Со Ра уже 10 лет живёт во Франции. Там она открыла пекарню, используя в выпечке корейские ингредиенты. Она считает,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может познакомить французов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й действует при МИД РК, провёл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обмену опытом, пригласи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рошлый год,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составила 7 млн 320 тыс. человек. Однако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язанная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роводится разрозненно различ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включая МИД и миноуст. На этом ф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вигает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й возьмёт на себя роль координирующего центра. Для этого ведётся работа по внесению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 о структу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прошлом подобный проект неоднократно свёртывался из-за опасений о возможных проблемах со странами, остро реагирующими на вопрос с нацменьшинствам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на этот раз,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непростой.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ойдёт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Mokkoji Korea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центром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проведёт в Узбекитстане и Малайзии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Mokkoji Korea. Он пройдёт 24-25 сентября в Ташкенте, 12-13 ноября в Куала-Лумпуре в офлайн-режиме. Цель фестиваля - знаком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 разных аспектах традиций и современной жизни. В его программу входят выставки, встречи с артистами K-POP, концерты, дегустации блюд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Mokkoji - это корейское слово, означающее собрание людей для гуляния.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30 лет с момент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Узбекистаном.

Власти РК рекомендуют прибывающим в страну использовать систему Q-код

С 3 сентября все прибывающие в РК из-за границы воздушным или морским транспортом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правки с отрицательным ПЦР-тестом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этой связи пункт карантинного контроля в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призыв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истему карантинного контроля Q-код.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своих данных позволит быстро загрузить результат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ЦР-теста, который сдаётся в первые сутки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Адрес и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введённые в систему Q-код, быстро передаются карантинным властям, что повыш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среди прибывающих в страну из-за рубежа. Планируется обратиться к авиакомпаниям и турагентствам с просьбой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загрузку системы Q-код до посадки в самолёт.

В праздник Чхусок на дороги РК выехали 22 млн автомобилей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осеннего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с 9 по 12 сентября на дороги РК выехали 21 млн 960 тыс. автомобиле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порации скоростных шоссе, среднесуто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5 млн 490 тыс. автомобилей, что на 17,8% больше, чем в праздн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вязи с отменой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бъём продаж в зонах отдыха вдоль скоростных дорог вырос на 72%. (RKI)

Экспорт притормозит на фоне глоба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пада

Сеул, 13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планиру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местным экспортерам торгов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 размере до рекордных 351 триллиона вон (26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в попытке поддержать экспорт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го торгового дефицит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назвало сокращение экспорта в Китай, падение цен на чипы и высокие энергозатраты тремя основными рисками для торговли страны и планирует усилить управление такими рисками.

Эта мера была объявлена в связи с ухудшением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страны,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за того, что импорт рос более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чем экспорт, из-за высоких затрат н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Экспорт, основной факто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вырос на 9,4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июле, отметив 21-й месяц роста подряд.

Но страна четвертый месяц подряд испытывает де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поскольку высокие цены на нефть и сырьевые товары увеличили счета страны за импорт.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явило, что экспорт, вероятно, достигнет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в этом году и превысит 644,4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подсчитанные за прошлый год, но ожидается, что рост экспорта замедлится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из-за глоба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пада.

На этом ф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расширить торгов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для экспортеров в попытке предотвратить их трудности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редств.

Сеул, 12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Каждый пятый иностранец, находящий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является нелегальным иммигрантом, при этом число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возросло почти до 400 000, показ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данные.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обр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в июле 395 068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ились в стране без действующей визы,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20 процентов от всего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без

Оно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9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на покрытие расходов на логистику для 750 мелких экспортеров и предложит специальные кредиты с низкой ставкой на сумму 6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небольшим фирмам, обеспокоенным ростом издержек.

Между т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итаем в секторах, которые обе страны стремятся развивать, таких как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а такж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детали и материалы.

Этот шаг направлен на оживл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в Китай, крупнейшего торгового партнера страны, поскольку его поставки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сократились на фон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пада в Китае.

Поставки страны в Китай упали на 11,2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течение августа.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страна зафиксировала де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с Китаем в размере 667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и готова объявить о дефиците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с Пекином пятый месяц подряд в сентябре.

Что касается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го сект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ит корпоративные инвестиции, чтобы помочь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микросхем увеличить инвестиции более чем на 340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пяти лет.

Оно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обучить около 150 000 сотрудников в индустр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микросхем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и логических микросхем. Н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пришлось около 20 процен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Число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полумиллион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неуклонно растёт: с 388 000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 примерно 392 000 в марте и около 394 000 в мае.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без документов от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также выросла с 15,5 процента в 2019 году до 19,3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и 19,9 процента в 2021 году, показали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яснило такое увеличение тем, что все больше иностранцев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на родину из-за ужесточения пограничного контроля после вспышки пандемии.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становится трендом

Сеул, 13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Физические упражнения и фитнес становятся образом жизни дл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цев, которое было лишено других развлечений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основном они занимаются аэробными упражнениями, такими как бег и езда на велосипеде. 31-летний Ан Хо Ген, офисный работник, сразу после работы передевается в спортивную форму и бежит из Кванхвамуна, где он трудится, в Букчхон, где живет. Его телефон записывает количество шагов и пройденное расстояние.

Бизнес активно следит за тенденцией. Компания Kolon Sports запустила в Сеуле такие спортивные программы, как трейлраннинг, названный в честь ее бренда Wind Chaser, и плоггинг — бег трусцой во время сбора мусора — под своим эко-брендом Sotsot.

Универмар Lotte в Донгане к югу от Сеула организовал групп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обираются на пробежки, и на них приходят от 30 до 500 человек.

Отели также спешат на помощь, предлагая «активные» пакеты отдыха для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усидеть на месте. ОТЕЛЬ L'Escape представил пакет услуг для игры в гольф в помещени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отель Westin Chosun Seoul предлагает уроки тенниса для гостей, а отель Walker Hill — пакет услуг для занятий йогой.

Рынок снаряжения также растет. По данным маркетолога NPD Group, рынок мужских кроссово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рос на 17 процентов, а женских — на 24 процента. Adidas открыла новый магазин в Каннаме, предлагающий услуг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примерки, в то время как Nike открыла магазин в модном районе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нгик, предлагающий бесплатные пробы товаров.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Эмми»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Эмми», которая считается телевизионным эквивалентом «Оскара»,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74-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ы состоялась 12 сентября в театре Microsoft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Обладателем приза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и сценарий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сериала» стал Хван Дон Хёк — продюсер, автор сценария и режиссёр-постановщик сериала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Исполнитель главной роли Ли Чжон Чжэ завоевал награду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ая мужская роль в драматическом сериале». Его конкурентами в борьбе за победу были Джейсон Бейтман (сериал «Озарк»), Брайан Кокс и Джереми Стронг («Наследники»), Боб Оденкёрк («Лучше звоните Солу») и Адам Скотт («Разделение»). Ли Чжон Чжэ стал первым неанглоязычным актёром-обладателем «Эмми».

KBS World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ейерверков

8 октября после дву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ейерверк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компании Hanwha,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как и в 2019 году, в парке на берегу реки Ханган в сеульском районе Ёйдо. Помим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иротехников, своё мастерство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Италии и Японии. Этот фестиваль входит в число крупнейших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К, которые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впервые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KBS World

Продавай и властвуй: как обе Кореи извлекают выгоду из СВО

Пхеньян сделал окончательную и бесповоротную ставку на РФ, тогда как подход Сеула оказался более изощренным

Понаблюдав за развитием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Южная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и КНДР в итоге заняли крайне прагматичные позиции, используя ситуацию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своих интересов, причем ка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так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Если Пхеньян сделал окончательную и бесповоротную ставку на Россию, пойдя на разрыв отношений с Киевом после признания республик Донбасса, то подход Сеула оказался более изощренным. Южная Корея, оставаясь в западном лагер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 а также экономи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ет Киев, присоединившись к антироссийским санкциям. Вместе с тем, Сеул явно не торопится сжигать все мосты в отношениях с Москвой, всячески давая понять, что против РФ он и его бизнес действуют «по вынужденному минимуму», а сам он будет готов возобнов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как только позволит ситуация. Параллельно Южная Корея старается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занять те ниши, которые из-за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неожиданно открылись в ранее считавшихся неприступными для нее сегментах мирового рынка. Суд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как Сеул, так и Пхеньян весьма успешно добиваютс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гарантируя преференции и выгоды для себя в новом мировом порядке.

СЕУЛ РЕШИЛ БЫТЬ КАК ВСЕ

Начало Россией 24 февраля спец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застал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литиков и экспертов врасплох —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то не ожидал и не предсказывал подобного разворота. Впрочем, далее Сеул действовал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и,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Когда на Западе развернулась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антироссийская кампания и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люб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оторое попытается отделаться молчанием, буд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Вашингтоном как ставшее на сторону Москвы, 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стро осудили «нарушающую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вооруженную агрессию» России, присоединившись ко всему пакету санкций, которые были введены в рамках единого подхода западного лагеря.

Н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забыла и о возможных негативных последствиях для себя от ухуд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В Сеуле вспомнили, что Россия — хоть и не самый важный, но весомый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артнер. Она поставляет в РК важные ресурсы, граничит с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и может оказать влияние на полит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Что немаловажно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 у Москвы довольно тес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а потому, как следствие, Россия, как полагают в Сеуле, может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влиять на северян.

В этой связ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быть как все» — поддерживать те меры, которые были выработаны в рамках единого подхода стран Запада,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и не проявлять особой инициативы, не стремясь пополнить ряды наиболее антироссийски настро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итоге не толь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а, выходца из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прогрессив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но и сменившая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и более проамерикански настроенного Юн Сок Ёля, сохранила подобную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и в целом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 Киеву помогаем экономически, гуманитарно и морально, против России поддерживаем «общеобязательные» санкции, но без собственно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В общем, поступаем так, чтобы не навлечь на себя недовольство США, но при этом даем понять России, что «мы вынуждены делать то, что приходится, но не более того».

СЕУЛ ОТКАЗАЛ КИЕВУ В ПОСТАВКАХ ОРУЖИЯ

Важ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подхода Сеула к украинскому конфликту и отношениям с Москвой стала позиция, которую Южная Корея выработала по поводу просьб о поставках Украине 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и боеприпасо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еул в этом плане подвергся сильному давлению. Очень активно и эмоционально уговаривали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мочь танками, гранатометами и прочими видами оруж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краины самого разного уровня, вплоть до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Зеленского. Сеул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сещали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иева, у которых была одна главная просьба: «Спасибо за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но нам нужно ваше оружие, дайте нам его!» Сильно давили на корейцев и американцы, в том числе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мая в Сеул прибыл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жо Байден, который с Юн Сок Ёлем также обсуждал украинскую проблематику. Побывавшие зат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американ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ровнем пониже то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 о поставках оружия Киеву.

Вместе с тем,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в ходе разного рода закрыт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российск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дали пон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что они «всё понимают», но вот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напрямую Украине буду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агрессивный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й акт со всеми вытекающ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Сложно уверенно утверждать, угрожала ли Москва активизацией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

ном, но на экспертном уровне в РФ звучали следующие идеи: «Если Сеул поставит оружие Киеву, то Москве стоит помочь Пхеньяну оружием и технологиями».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бы означало, что очень далекий от Сеула и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после начала переставший интересовать рядовых корейцев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мог бы неожиданно материализоваться в военную угрозу самому Югу в виде уси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граница с которой стоит от Сеула лишь на 40 км.

В итоге Южная Корея проявила достаточную твердость,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казавшись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Украине напрямую.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Сеул продолжит оказывать самую раз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гуманитар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расширит ее объемы,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регионов Украины, но «в отношении оружия — извините, своими интересами рисковать не будем».

СДЕРЖАННЫЙ СЕУЛ

Кроме того,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уровне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также высказывался в целом о спецоперации достаточно сдержанно. Когда приходилось делать заявления по поводу Украины и России, то обычно говорилось следующее: «Действия Москвы осуждаем, но надеемся, чт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наступит мир и мы сможем вернуться к прежнему уровн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Ф».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ублично заявля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ак Чин.

Были и другие признаки того, что Сеул не хочет дальше порт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Москвой. Нового посла Южной Кореи в Москве назначили быстр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изывы «усили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изоляцию России». Хотя это не особо афишировалось, н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ложительно и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разного рода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е послания из Кремля в связи с теми или иными событиями — от вступления Юн Сок Ёля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до поздравлений в связи с Днем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5 августа, которые отправлялись от имен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удя по словам российски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в ходе двусторонн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 стремятся без надобности поднимать украинскую тематику и снова и снова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будут рады возобнов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огда это позволит ситуация», то есть когда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общеобязательные» для РК западные санкции.

Безусловно, введенные против России санкции сильно ударили и по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бизнесу и по работавшим в РФ 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но все же подход тут отличался от «общезападного». Если большинство западных компаний прекращали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оссии «из-за чувства мор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нежелания работать в стране, которая совершила агрессию», то корейские фирмы если и прекращали работу, то только когда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например, из-за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должать поставки комплектующих. О «мора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речи не вел, и часть компаний (например, знаменитая в РФ своими бисквитами-«чокопаями» фирма «Орион») продолжили расширять бизнес в России, сказав, что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для них слишком важен.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спертных кругах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уже сложилось понимание в стиле: «Наш „обязательный минимум“ по Украине мы сделали и делаем, а больше не надо — у нас ес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отношениях с Россией». Когда бывший лидер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Ли Чжун Сок поехал с визитом в Киев, где активно общался с украинскими политиками и Владимиром Зеленским, то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домой Ли ждал холодный прием даже в своей партии. Там заявили,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ямо, что он «полез не в свое дело» и стал делать то, на что у него нет ни прав, ни полномочий.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его хотя и приняли, но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ездил он на Украину в личном качестве и не представлял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я. Все призывы Ли Чжун Сока оказать помощь Украине, в том числе путем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й, остались без официального ответа, а на уровне партии ему опять напомнили, что подобные вопросы не в его компетенции.

Не стоит думать, конечно, что РК заняла подобную сдержанную позицию из-за каких-то симпатий к России. Может у отдельных корейцев и есть какие-т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чувства к РФ, но в цел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Россию знают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Даже до украинско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неизбежно привела к ухудшению восприятия корейцами России, к РФ относились как правило нейтрально-безразлично, а часто и настроенно. Сказывалось и сказывается то, что Россия «в контрах» с США — главны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союзником Сеула, без которого корейцы не мыслят свое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в Сеуле есть понимание, что у Кореи свои интересы. Именно этой чисто прагматичной точкой зрения и объясняется сдержанность Сеула.

РОССИЯ ОЦЕНИЛА ПРАГМАТИЗМ ЮЖНОЙ КОРЕИ

Прагматичный и сдержанный подход Сеула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приносит свои плоды и в отношениях с Москвой. В политическом руководстве РФ заметили и оценили,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явно не в авангарде критиков России, не пошла на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Киеву и в общем,

где это возможно, продолжает искать пути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опасения корейцев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ых ответных санкций, была выбрана российским Росатомом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партнеров на постав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части объектов на египетской АЭС «Аль-Дабаа». Корейцы получили контрактов на \$2,25 млрд и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опыт по части возведения атомн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это было подано как большой успех и «прорыв». Если верить отдельным изданиям, то вообще создава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это управляющая атомными станциями в Южной Корее компания KHPN, а не Росатом строит АЭС в Египте.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для корейцев это очень важная сделка, которая стала в том числе и плодом сдержанности Сеула по поводу украин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и. Вряд ли бы KHPN получила контракты от Росатома, если бы Южная Корея встала в авангарде агрессивных критиков Москвы.

АЭС, ОРУЖИЕ И ДРУГИЕ ПРИБЫЛЬНЫЕ ОТРАСЛИ

Точно такой же прагматизм в действиях Сеула мы видим и по друг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для которого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создал шансы застолбить за собой такие ниши, на которые Южная Корея раньше и не могла надеяться. Впрочем, о том, что «из-за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у нас появился шанс и нам надо его немедлен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 об этом уже давно открыто говорят как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так и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деловых кругах Южной Кореи.

В частности,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в саммите НАТО во многом и объяснялось желани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от шанс и, что греха таить, пол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ботать деньги. Поддержав вербально позицию НАТО и в то же время «отбившись» от призывов оказать помощь Украине поставками оружия,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смог усилить позиции своей страны по части получения контрактов и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ряде стран Европы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онтракт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С получат корейцы, которых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США, пытаяс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полнить ту нишу в сфере атомного энергостроения, которую по причинам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с Западом покинули в Европе Россия и Китай.

Сеул же, как мы теперь видим, смог получить контракты и от России в Египте и при этом активизирова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странами Европы, нацелившись на мегаконтракт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С, заручившись поддержкой Вашингтона. Атомная энергетик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в его работе по созданию новых локомотивов ро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а потому не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этой сфере уделяется такое внимание.

Еще более громкий прорыв «благодаря» конфликту на Украине Южная Корея смогла сделать в плане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рынок вооружений для стран Запада. Отказавшись напрямую (и бесплатно!) поставлять боеприпасы и вооружения Киеву,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но сказать, делает это опосредованно, через третьи руки, продавая оружие тем странам, которые сами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о направляют на Украину свою технику. Так, Южная Корея договорилась продать Канаде около 100 тыс. 155-мм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снарядов, так как канадские склады опустели после крупных партий помощи украинцам.

Но самый «жирный кусок» корейцы получили в отношениях с Польшей. Так, Южная Корея и Польша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оставках Варшаве 980 танков, основанных на корейских K2, 648 единиц 155-мм самоходных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установок K9, 48 легких штурмовиков FA-50. Точная сумма сделки не названа, но, согласно оценкам, она составит \$15–20 млрд. Это крупнейший в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тракт на экспорт вооружений. Для сравнения скажем, что за весь 2021 год, который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ВПК считается очень удачным, Корея поставила за рубеж оружия лишь на \$7 млрд, а тут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в два-три раза больше, и это в одну только Польшу!

Польша, как и Канада, изрядно истощила свои арсеналы, помогая Украине боеприпасами и техникой, а потому решила их пополнить корейскими образцами, заодно и освободившись от больших запасов техники советского образца.

Известно также,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поставлять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Европы (разговоры идут о Норвегии, Швеции, Финляндии) и в Австралию свою технику, включая те же САУ K9, танки K2, БМП K21 и прочее.

Отметим, что «оборонка» и экспорт вооружений — также один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Неслучайно, что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случаю 100 дней своего президентства он заявил о цели войти в четверку крупнейших экспортеров оружия в мире. В 2021 году РК заняла восьмое место, но отметим, что в 2000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была лишь на 31-м месте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Теперь же, как видно, вполне имеет шансы войти в четыре-пять глав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ружия в мире. Кстати, в период с 2017 по 2021 год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самым быстрорастущим экспортером оружия.

(Окончание на 7-ой странице)

인천공항검역소, 해외입국자에 Q-CODE 사전 입력 당부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 정보 입력해달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소장 최희희)는 9월 6일 "해외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https://cov19ent.kdca.go.kr>)에 검역 정보를 사전 입력한 후 입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이번 조치는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2022.9.3.)로 인해 입국 후 1일 차 검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라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시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하게 검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국 후 1일 차 PCR검사 결과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데이터화 된 PCR검사 결과 정보를 통해 확진자의 근접 좌석 승객, 관할 지자체 파악 등 빠른 조치가 가능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입국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자동 전

송되므로, 별도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서류 검역 대비 3배 가량 빠르게 검역이 완료된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추석 명절 전 출국자들이 대상으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홍보할 예정이며, 항공사 및 여행사 설명회를 통해 입국자가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입력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 일부 항공편 대상으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만으로 검역 조사하는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적용할 편영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Продавай и властвуй: как обе Кореи извлекают выгоду из СВО

Пхеньян сделал окончательную и бесповоротную ставку на РФ, тогда как подход Сеула оказался более изощренным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6-ой странице)

Южная Корея очень быстро и удачно использовала возм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появились из-за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Если бы не он, вряд ли страны Запада стали бы так активно обновлять свои арсеналы. Мировой рынок ВПК — очень эксклюзивная, закрытая и при этом очень прибыльная ниша, новичков (даже из числа союзников) там не любят. Однако спрос и общая ситуация оказались такими, что европ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не успевают удовлетворять аппетиты покупателей, что и предоставило Южной Корее уникальный шанс проникнуть туда, куда в другое время ее вряд ли бы пустили.

По этой же прагматической логике Южная Корея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разного рода конференциях, где обсуждается, кто и как будет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разрушенную часть Украины. У корейцев очень большой опыт по ча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елых городов и крупных жилы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ов под ключ, а потому украинская ситуация и тут позволит Корее неплохо заработать.

СМЕЛЫЙ ХОД СТРАНЫ ЧУЧЕ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ПОБЕДА РЕСПУБЛИКИ»

С немалым успехом свои цели и задачи решает и другая Корея — Северная, для которой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также открыл новое «окно возможностей». Хотя в доступных для своих граждан источниках КНДР долгое время не сообщала про начало конфликта, но публично — как с трибуны ООН, так и через вещающие на внешнюю аудиторию СМИ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держали Москву, возложив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эскалацию на политику США и стран Запада, которые игнорировали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РФ и продолжали расширять НАТО на восток.

Эта реакция была ожидаема, однако мало кто предполагал, что КНДР пойдет куда дальше, сделав более смелый ход. 14 июля главный рупор КНДР —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официально подтвердило появившиеся днем ранее в российских СМИ сообщения о том, что Пхеньян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л республики Донбасса — Донецкую Народную Республику (ДНР) и Луганскую Народную Республику (ЛНР), установив с ни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ал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торой после Сирии зарубежной страной, признавшей ДНР и ЛНР. Реакция из Киева последовала очень быстро: Украина заявила о разрыв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а Владимир Зеленский пообещал «отреагировать жестко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КНДР прекрасно представляла себе возможный шаг Киева, и он ее особо не волновал.

Ход с признанием и установлением дипотношений с ДНР и ЛНР перевел КНДР уже куда ближе к Москве даже среди тех стран, которые так или иначе были на ее стороне в конфликте. В мире хватает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не спешат присоединяться к санкциям Запада, но мало кто из них установил с республиками Донбасса дипотношения. Не случайно глава ДНР Денис Пушилин назвал признание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больш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победой» республики. Далее пошли уже разговоры о возможном открытии посольства в Пхеньяне и прочих шагах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ЛДНР.

ТАИН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ложно говорить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поче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ошло на такой шаг, когда могло бы просто выступать в СМИ и в ООН с поддержкой действий РФ, но, как видится, учитывались разные факторы, которые отвечали интересам Пхеньян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в Пхеньяне быстро увидели потенциально выгодную для нее особую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ую ситуацию.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т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Запад Украины Пхеньяну вряд что-то можно было получить. С другой, КНДР сама находится под санкциями ООН, которые в свое время поддержала в том числе и Москва, что закрыв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ного рода видов помощи и поддержки Росс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о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о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й.

ДНР и ЛНР «не существуют» для ООН, которая вряд ли их признает, учитывая общ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асклад 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раво вето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Франции в Совбезе ООН. Юридическое «отсутствие» республик означает, что ООН не введет против ДНР и ЛНР санкций. Однако для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Донбасса, наоборот, полноц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ые признаны Москвой. То есть ДНР и ЛНР могут стать той самой территорией, через которую, если будет желание,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смогу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Если называть вещи своими именами, то Россия может так или иначе помогать или передавать что-то ДНР и ЛНР, а те уже доставят это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Москва же официально может заявить, что Донецк и Луганск — сувер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ые волены поступать, как захотят, а при этом ДНР и ЛНР нет смысла бояться санкций ООН из-з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так как республики Донбасса не признан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нятно, что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ре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удет все же ограничено отсутствием общих границ КНДР и Донбассом и нежеланием РФ, как постоянного члена СБ ООН, открыто нарушать введ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отив Пхеньяна санкции, но возможности открылись, и они немалые. Похоже, чт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быстро поняли, что возможности из разряда теоретических перешли в реально осуществимые.

ОТ ВЕТО НА САНКЦИИ ДО СТРОЕК В ДОНБАССЕ

На что же мож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КНДР? Во-первых, вполне можно ожидать поставк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от Росс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Данный вариант существовал и раньше, но теперь Москва получил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положительно рассмотреть» подобный вопрос. Не случайно 6 сентября директор Пер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МИД РФ Георгий Зинovieв заявил 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оставок в КНДР нефти 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Такж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негативная реакция Москвы на любые попытки Запада вве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Пхеньяна, даже если последний пойдет на очередные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держки РФ и Китаем новы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и так была невелика даже до признанию ЛДНР Пхеньяном — хотя бы по причине крайне напряж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ы и Пекина с Вашингтоном, а теперь же у России будет еще своего рода «моральный долг» перед КНДР. Учитывая, если верить зарубежным экспертам, полную готовность Пхеньяна к очередным ядерным испытаниям в целях проверки возможностей создания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а также — обещания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жестко отреагировать на это, перспективы блокирования Москвой новых санкции против Пхеньяна по линии ООН весьма пригодятся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роме того, есть разного рода проект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торгового и проч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НР и ЛНР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полного закрытия властями КНДР своих границ для въезда любых людей,

включая своих граждан, за границ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России) застряли около тысяч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Их теперь можно немедленно направить на работу в ДНР и ЛНР. О высоком потенциале подобного вид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явил в середине июля посол РФ в Пхеньяне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А когда КНДР откроет свои границы, пото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 ДНР и ЛНР может быть увеличен в разы.

Западные эксперты уже назвали подобный вариант, если он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нарушением санкций СБ ООН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но росси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арируют, что меры ООН запрещают нов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России с КНДР, но не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и транзит рабочей силы в третьи страны. Как минимум ситуация неоднозначная и открытого запрета на «путешествия»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в Донбасс в санкциях ООН нет. КНДР, ДНР и ЛНР,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ранее, на меры ООН вообще не будут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я.

Кроме того, цитируя того же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ла в КНДР, «практически на всех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а также заводах транспортного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построенных в КНДР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СССР, всё ещё сохранилось в эксплуатации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выпускали предприятия из Донбасса», что также может ста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ацегора указал и на возможности обмена товарами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республиками Донбасса.

Можно также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ДНР и ЛНР могут стать территориями и для иного род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Ф и КНДР, включая военное, — спекуляции на эту тему уже озвучили ряд западных СМИ, однако это сложно проверить. Безусловно, Пхеньян был бы рад получить от России какие-то современные во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вооружения. Но спорным является вопрос о том, пойдет 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на подобную сделку, учитывая явный факт нарушения резолюций ООН.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 «донбасском канал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Ф и КНДР Москва может регулярно напоминать Сеулу, если последний вдруг решит предоставить Киеву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прямую.

ЮГ И СЕВЕР ЖДУТ ДИВИДЕНД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к видно,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полне определились и выработали свою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событий на Украине. Эти подходы внешне очень разные, но по своей сути они едины в том, что и Сеул и Пхеньян с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ситуацию в своих целях и с немалой для себя пользой. Стоит все 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эти потенциальные приобретения для КНДР пока остаются лишь в разряде именно «возможных». Это в некоторой степени отличает ее от Сеула, который своей реакцией на события на Украине, уже успел «монетиз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выгоду, подписав контракты на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в Польшу, Канаду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а также — участием в проекте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ЭС в Египт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Росатома. Конечно, хватает самых разных слухов и домыслов по поводу того, как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уже начали помогать друг другу и что КНДР «получила» за признание ДНР и ЛНР, но независимо это проверить пока сложно. Впрочем, с высокой долей вероятности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не только Южная, но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звлечет материальную и другую выгоду из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Москва)
(News.ru)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о итогам гонки на 42,2 километра лидерами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стали Дмитрий Карпец и Алексей Носик.

В полумарафоне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показали Максим Косарев, Яков Леманов, Роман Шанурин, Олег Колмогоров, Владимир Скудневский, Анастасия Вандышева, Ксения Нижегородова, Ульяна Добровольская и Людмила Голубцова.

На дистанции 10 километров золото завоевали Юрий Лагун и Екатерина Воротыляк.

〈사할린스키 아르바트〉가 다시 도서 애호가들을 초대

사할린 일반 과학도서관이 제12회 〈사할린스키 아르바트〉(6세 이상)주 도서관 박람회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를 권한다. 매해 가을에 열리는 도서 행사가 주 문화 및 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오는 9월 17일(토) 12시부터 16시까지 열린다.

도서관 박람회는 모두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펼쳐는 활동교실, 도서 경매, 전시회, 사진촬영 구역, 도전게임, 퀴즈대회, 도서전, 보드게임, 연극 및 상호작용 한마당, 그림 판매에서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방문객들은 이동식 영화관에 들어가 우주에 대한 과학영화(6세 이상)를 관람할 수 있다.

예술품 판매에서는 공예 장식품들, 책 및 기념으로 만든 작품, 사할린 화가들의 그림들이 펼쳐진다. 춤을 좋아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소공원에서 왈츠 활동교실이 열리고, 또한 공개 기타 교습에서

는 누구나 기타 코드를 배우고 자신의 첫 멜로디를 연주해볼 수도 있다. 체호브 소공원에는 방문객들이 그림을 그려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창립 75주년을 축하할 수 있는 '툼소여의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행사는 기념 공연으로 마무리한다.

"Сахалинский Арбат" снова соберет любителей книг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островитя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XII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ярмарке "Сахалинский Арбат" (6+). Ежегодное осеннее книжное событ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17 сентября с 12:00 до 16:00,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Посетителей библиоярмарки ж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6+), книжный аукцион (6+), выставки (6+), фотозоны (6+), квесты (6+), викторины (6+), книжный развал (6+),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6+),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е (6+) 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6+) площадки, а также торговая галерея (6+).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мобильный планетарий и посмотреть научные фильмы о космосе (6+). Торговая галерея предложит творческие работы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нижную и сувенирную продукцию, картины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К радости любителей потанцевать, в библиотечном сквере пройде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вальсу (6+). Открытый урок по игре на гитаре (6+) позволит всем желающим разучить аккорды и сыграть свою первую мелодию.

В сквере имени Чехова будет стоять "Забор Тома Сойера", на котором гости ярмарки смогут поздравить СахОУНБ с 75-летием, нарисовав рисунки.

Подроб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Завершится праздник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6+).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최경론 씨가 중환 병으로 2022년 9월 13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포로나 이스크 구역 보스토크 마을에서 별세 하셨습니다. 부고하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사할린주노인회

14 сентября 2022 г. поздно вечером после тяжело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ушел из жизни Им Ха Сик (1949 г.р.), бывший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Мы помним его как актив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ика, большого любителя туризма, отличного семьянина. Он очень трогательно относился к своей супруге, которая ушла из жизн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усть земля ему будет пухом.

Правление ЮСМОК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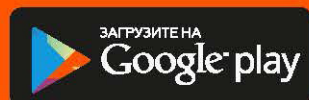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x.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